

## 축산업계에 부는 세계화 바람, 베트남 시장은?



김 동 호 기자  
농수축산신문

국내 축산업계에도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하림그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것에 이어 미국 굴지의 계열화 업체인 알렌 패밀리 푸즈사를 인수해 본격적인 현지경영에 나섰다. CJ사료와 우성사료, 선진사료 등의 사료 업체와 CTC바이오, 우진 등 동물약품 업체도 아시아 시장에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아시아 국가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앞선 국내 기술의 영향도 있지만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중 베트남은 국가정책으로 축산업을 장려하는 국가로 다른 나라의 자국내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신규 진출이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베트남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 베트남 축산업은 지금

베트남 축산업은 전체적인 사육 규모는 매우 크지만 사양관리 기술이나 축산업 관련 제반 산업의 기술은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돼지는 2,700만 마리 규모로 아시아 2위, 세계 4위 규모이며 닭의 경우 3억800만 마리로 아시아 10위, 세계 13위 규모이다(〈표 1〉 참조).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2.25kg으로, 2001년 20kg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앞



일덱스박람회 해외기자초청 프로그램 브리핑

으로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기형적인 육류소비구조를 바꾸기 위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닭고기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베트남의 향후 계육산업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호앙 킴 지아오(Hoang Kim Giao)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축산국장은 지난 9월 26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베트남 축산업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선

호하는 음식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쌀국수와 끄성(밥위에 양념된 돼지고기를 얹은 베트남 전통음식) 등 지나치게 돼지고기에 편향된 터라 정부에서는 돼지고기의 수요를 닭고기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업의 급성장은 이어질 것

베트남의 축산업은 연간 7~8%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축산업 성장세의 배경에는 베트남 정부의 지원과 축산물 소비량, 인구의 빠른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다.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에서는 5년 단위의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베트남 축산 지원정책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생산성 극대화과 품질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종돈과 종계, 사료, 약품 등 축산분야 해외업체들의 베트남 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축산정책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 성

〈표 1〉 베트남 축산업 현황

| 품목    | 마릿수(백만마리)    | 아시아 순위 | 세계 순위 | 개선 사항      |
|-------|--------------|--------|-------|------------|
| 돼지    | 27,373       | 2      | 4     | 낮은 생산성과 품질 |
| 닭     | 308.4        | 13     | 10    | 낮은 생산성     |
| 버팔로   | 2.9          | 6      | 6     |            |
| 육우    | 5.92         | 10     | 0     | 낮은 생산성     |
| 젖소    | 128.58(*천마리) | -      | -     |            |
| 염소, 양 | 1.38         | -      | -     |            |

장률도 8%가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인구 증가율도 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물의 소비증가도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어 베트남 축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호앙 김 지아오 국장은 “베트남의 축산업 성장세의 배경에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축산물 수요확대와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에 있다”며 “이 때문에, 베트남의 높은 농업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사료작물 부족으로 50%에 가까운 원료를 수입해야 할만큼 베트남의 축산업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베트남의 축산정책, 핵심은 '질적 향상'

베트남의 축산업은 규모면에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열악한 생산환경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품질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 축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산업의 경우 개량되지 않은 돼지를 사용하고 있어 사료요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농가가 부업 수준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품질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높은 사육규모나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사료, 기자재 등 축산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축산업의 현실을 개선키 위해 정부는 부업규모의 양돈장과 양계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전업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를



호앙 김 지아오(Hoang Kim Giao)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축산국장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축산관련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 선진국의 베트남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성은 양적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서 환경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등 축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의 베트남 내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이라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전했다.

### 투자지로서 베트남은?

닭고기산업의 해외 투자지로서 베트남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육류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현재 11%가량을 차지하는 닭고기 시장의 규모를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프랑스 하이브리드 베트남 조엘 줄루 국장

것을 하나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의 소비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열풍’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한 상황인터라 한국사람과 상품들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호감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베트남 시장 진출시 국내에서처럼 기존의 브로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트남사람들이 선호하는 닭고기가 가슴살이 발달한 브로일러보다는 쫄깃한 식감이 뛰어난 한국의 토종닭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남부 동나이 지역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인 트라이 가 탠 덕(Trai Ga Thanh Duc)의 누잉 방 비엩(Nguyen Van Bien) 매니저는 “베트남에서 산란계 노계는 미화 2.5불 정도에 판매되는데, 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을 가진 고기를 선호하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차이를 극복해야

베트남이 가진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 ‘껌 씹으며 계단 못오른다’는 말로 대변되는 공산권 특유의 타성과 열대 기후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지나친 ‘여유로움’, 시간 개념이 뚜렷하지 못한 문화 등이 선진국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굳이 관여하지 않고 자존심 또한 매우 강하다.

이같은 문화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조직문화는 업무에 소요된 시간보다 업무의 진행도가 더 중요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근무 시간이 중요한 잣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터라 해고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보다는 상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베트남 동나이 지방의 프랑스계 종돈회사 프랑스 하이브리드 베트남 조엘 줄루 국장은 “베트남의 인건비는 매우 싸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투자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마음가짐과 동시에 사규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img alt="Small logo icon" data-bbox="785 895 815 910"/>